

잼버리 청소년들 한국문화체험 나서

국립전주박물관, 20개국 1280명 청소년 대상 '전주, 특별한 순간' 운영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장진아)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20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알리는 체험 프로그램 '전주, 특별한 순간'을 대회 기간 동안 영어와 한국어로 교차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한 룩셈부르크 등 20개국 1,280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잼버리 기간 중 2~10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8일간 매일 오전(80명)과 오후(80명) 두 차례에 걸쳐 각국의 대원들이 다양한 박물관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맞춰 개막한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이주 특별한 만남, 그림으로 그리다'와 연계해 진행된다. 이 행사는 이진희 기증품을 포함한 모두 31건 83점의 우리 옛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다. 대원들은 체험에 앞서 큐레이터의 설명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고, 전시에 출품된 채용신의 '평생도' 중 한 장면, 친한 벗들과 함께 그린 '합작도' 속 대나무 등이 그려진 부채를 직접 색칠하며 한국인의 회노예력이 녹아든 인생 스토리 및 한국인의 생활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분관 상설전시관에서는 한국문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재)한국전통문화전당과 협업



한국 전통 부채 체험 중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

해 한복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원들은 선비의 복장과 차마저고리 등 전통 한복을 입고 박물관 상설 전시실을 둘러보며 한국의 역사문화를 배우고, 한복 관련 활동지와 선비 문화 활동지를 체험하는 등 체계적으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이 박물관에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청소년기에 소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강효정 교수 공연단 '알테뮤지크서울'

서울 예술의전당 여름음악축제 선정... 24일 공연

전북대학교 강효정 교수(음악과)가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알테뮤지크서울(Alte Musik Seoul)'이 서울 예술의전당이 추진하는 여름음악축제에 선정돼 공연을 펼친다고 전했다.

예술의전당 여름음악축제는 오는 22~27일까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과 IBK챔버홀, 리사이틀홀에서 개최된다. 이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은 이번 축제에서 다채롭고 조화로운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공모심사 대상을 신·구 연구자부터 국내와 해외 연주자까지 확대, 바로크와 현대음악에서부터 재즈까지 장르도 폭넓게 선보일 수 있도록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강 교수의 알테뮤지크서울은 24일 저녁 7시 30분 IBK챔버홀 무대에 오른다.

이 공연에서는 전북대 음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신혁진 작곡가의 '북한산의 사계'와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가 연주될 예정이다.

강 교수는 "다양한 음악의 향연이 펼쳐지는 예술의 전당 무대에 우리 공연단이 참여해 대중들에게 다양한 음악의 향유를 선사하고, 우리대학의 음악적 역량의 우수성까지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마음과 소리를 하나로 모아 수준 높은 공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알테뮤지크서울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강효정 교수는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음악대학과 쾰른 음악대학에서 전문연주자과정과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으며, 2022년 9월부터 전북대에서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국 댄스 경연·EDM버블파티 '변산비치파티'

부안군, 4~6일 변산해수욕장서 개최... 다양한 체험·볼꽃놀이 등도 진행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2023 변산비치파티를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춤추는 해변 follow 변산'을 슬로건으로 한 2023 변산비치파티는 작년에 이어 전국댄스경연 및 국가대표 댄서의 화려한 퍼포먼스, EDM 버블파티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변산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본 행사 홍보를 위해 행사장에 높이 7m의 대형 모래조각을 6월 중순에 설치했으며, 변산비치파티 로고 및 잼버리 엠블럼 등을 새겨 변산비치파티 홍보와 2023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있다.

변산비치파티의 주요프로그램인 비치댄스 경연은 총상금 2,500만원인 전국 스트리트 댄스 경연으로 청소년부와 성인부 나뉘어 3일간 경연을 펼친다.

국가대표 댄스 6팀의 화려한 퍼포먼스 무대 공연이 3일간 계속되며, 스트리트 댄스 파이팅의 우승팀인 제스트절크 퍼포먼스 공연이 5일에



있어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궜 예정이다. 4일, 5일 야간프로그램인 DJ DOC의 이하늘 등 DJ아티스트와 함께하는 EDM(일렉트로닉댄스뮤직)버블파티는 변산해수욕장 해변을 무대로 화려한 조명, 버블, 물대포에 바닷바람과 파도소리가 더해져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이밖에도 여름 밤바다 하늘을 환홍하게 수놓을 불꽃놀이도 5일 진행되며 무대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과 워터플레이존, 물총놀이존, 모래놀이존 등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1회차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최근 도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예술인 역량 강화 교육지원사업' 1회차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해 도내 예술인의 저작권 관련 교육, 전시 등 실무중심의 기초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회차 교육은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권리보장법' 상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사이버저작권에이전시 정구성 본부장이 강의를 맡았다.

한편 3일 실시되는 2회차 교육은 '예술활동관련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진행된다.

참석을 원하는 도내 예술인들은 이메일(jb_7447@hanmail.net) 또는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30~3)로 접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전북사회서비스원, 업무협약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일 재단 회의실에서 전북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과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문화·예술·관광분야 사업홍보에 있어 사회서비스기관과 연계해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있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카드 수혜자들이 거동 불편 및 정보의 부족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시설이

용자들에게 보다 확대된 홍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회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고령자 및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사회서비스기관 이용자들의 문화적 향유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재단은 도민의 균형적 문화향유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제8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통기타 라이브

2023년 8월 11일(금) 오후 6시~8시30분

전주한옥마을 특설무대(경기전 앞)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출연진 국민MC - 서정우

가수 - 백미현(난바람, 넌눈물) 이태원(술개, 여인아) 박영일(축제) 노스텔지어(별미소) 백영주 최영준